

##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I. 주요국 경제 동향 .....	1
II. 국내 경제 동향 .....	4
I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7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9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	11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mailto: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mailto: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3779-5327)  
                          [nicekang@koreaexim.go.kr](mailto: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mailto: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mailto: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mailto:mihyelee@koreaexim.go.kr)  
조 사 역 나혜영 (3779-5709)  
                          [nhy@koreaexim.go.kr](mailto:nhy@koreaexim.go.kr)

## I. 주요국 경제 동향

### 1. 미국

#### □ 소비·고용·물가 등 실물지표 양호한 흐름 지속

- (산업동향) 1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Delta 0.3\%$ [12월:0.6%]로 감소 전환하였으나 제조업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며 경기회복 기대감 지속, 소매판매 전월대비  $0.4\%$  증가[12월:1.0%]하며 꾸준한 개선세

\*ISM 제조업지수(기준=50): ('16.8)49.4 (9)51.5 (10)51.9 (11)53.2 (12)54.5 ('17.1)56.0 (2)57.7

- (수출입) 1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12월:4.3%]한  $\$1,921$ 억, 1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8.3\%$  증가[12월:4.8%]한  $\$2,406$ 억 기록하며 증가세 확대
- (고용·물가) 2월 실업률 전월대비  $0.1\text{p}$  감소한  $4.7\%$ 로 완전고용의 기준선인  $5\%$ 를 10개월 연속 하회, 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2.5\%$  상승[12월:2.1%]하며 물가상승폭 확대

### 2. 유로존

#### □ 생산·소비·수출 등 실물경기지표 양호, 물가목표치 근접에 따라 脫디플레이션 선언

- (산업동향) 1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9\%$  증가[12월: $\Delta 1.2\%$ ], 1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Delta 0.1\%$ [12월: $\Delta 0.5\%$ ]로 감소폭이 줄어들며 실물지표 개선
- (수출입) 1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12월:1.7%]한  $\$1,917$ 억, 1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12월:2.0%]한  $\$1,748$ 억 기록하며 증가세 확대
- (고용·물가) 1월 실업률 전월대비 동일수준인  $9.6\%$  기록, 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2.0\%$  상승[1월:1.8%]하여 ECB 목표치인 'below, but close to, 2%' 을 상회함에 따라 脫디플레이션을 선언\*

\*3월 9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Draghi 총재,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험이 사라졌다고 선언

### 3. 일본

- 산업생산 감소 전환에도 불구하고, 수출·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유지
  - (산업동향) 1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Delta 0.4\%$ [12월:0.7%]로 6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 1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5% 증가[12월: $\Delta 1.6\%$ ]하며 회복세
  - (수출입) 1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12월:6.6%]한 \$549억, 1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12월:2.4%]한 \$535억 기록하며 전월대비 대폭 개선
  - (고용·물가) 1월 실업률 전월대비 0.1%p 감소한 3.0% 기록, 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0.4% 상승[12월:0.3%]하며 오름세 유지

### 4. 중국

- 견조한 생산·소비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 흐름 지속
  - (산업동향) 12월 산업생산 전년동기대비 6.0% 증가[11월:6.1%], 제조업 PMI는 7개월째 50 이상을 유지하며 긍정적 경기전망 반영, 12월 소매판매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11월:10.6%]하며 성장세 유지
    - \*제조업 PMI: ('16.7)49.9 (8)50.4 (9)50.4 (10)51.2 (11)51.7 (12)51.4 ('17.1)51.3 (2)51.6
  - (수출입) 2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1,201억[1월:7.9%], 2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38.1% 증가한 \$1,292억을 기록[1월:16.7%]하여 3년 만에 무역적자\* 기록
    - \*왕성한 내수·춘절(春節, 중국 최대 명절)·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춘절의 단기적 효과가 사라지면 3월에는 흑자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 (물가) 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0.8%로 시장예상치(1.7%) 및 전월치(2.5%)를 크게 하회\*
    - \*일반적으로 춘절을 앞두고 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음. 올해 춘절 연휴가 1월 28일에 시작되었으므로 1월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16년 춘절 연휴가 2월 8일에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2월 물가가 낮게 나온 것은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
- ※ 중국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조사실업률”이 아닌 “등기실업률”을 발표(4% 내외), 실제 실업률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신뢰 가능한 지표 개발 전까지 고용 관련 내용 생략

### <참고> 해외경제 주요 지표

(증감률, %)

구분	'15년	'16년					'17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	2.6	1.6	0.4	0.9	0.5	-	-	-
	산업생산(전기비)	0.3	△0.9	△0.2	0.4	0.1	0.6	△0.3	-
	소매판매(전기비)	2.3	3.0	1.5	0.9	1.7	1.0	0.4	-
	수출(전년동기비)	△4.9	△2.2	△4.7	0.1	2.0	4.3	7.4	-
	수입(전년동기비)	△3.7	△1.8	△3.6	△1.3	2.9	4.8	8.3	-
	실업률	5.3	4.9	4.9	4.9	4.7	4.7	4.8	4.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1.3	1.1	1.1	1.8	2.1	2.5	-
유로지역	GDP성장률(전기비)	2.0	1.7	0.3	0.3	0.5	-	-	-
	산업생산(전기비)	1.5	1.4	△0.2	0.4	0.8	△1.2	0.9	-
	소매판매(전기비)	2.7	1.9	0.1	0.4	0.8	△0.5	△0.1	-
	수출(전년동기비)	△12.4	0.3	△1.6	1.1	2.1	1.7	5.5	-
	수입(전년동기비)	△14.6	△1.5	△4.8	△0.8	2.1	2.0	10.1	-
	실업률	10.9	10.0	10.1	9.9	9.7	9.6	9.6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1	0.3	0.5	1.1	1.8	2.0
일본	GDP성장률(전기비)	1.2	1.0	0.4	0.3	0.2	-	-	-
	산업생산(전기비)	△1.2	△0.5	0.2	1.4	2.1	0.7	△0.4	-
	소매판매(전기비)	△0.4	△0.9	0.1	1.0	1.9	△1.6	0.5	-
	수출(전년동기비)	△8.8	2.3	3.3	7.3	6.4	6.6	11.5	-
	수입(전년동기비)	△19.8	△6.7	△7.1	△3.2	0.1	2.4	11.8	-
	실업률	3.4	3.1	3.2	3.0	3.1	3.1	3.0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8	△0.1	△0.4	△0.5	0.3	0.3	0.4	-
중국	GDP성장률(전기비)	6.9	6.7	1.9	1.8	1.7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1	6.0	6.1	6.2	6.1	6.0	-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7	10.4	10.2	10.5	10.6	10.9	-	-
	수출(전년동기비)	△3.0	△7.7	△6.4	△6.9	△5.2	△6.2	7.9	△1.4
	수입(전년동기비)	△14.3	△5.5	△7.1	△4.4	△2.5	3.1	16.7	38.1
	실업률	4.1	4.0	4.1	4.0	4.0	-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2.0	2.1	1.7	2.2	2.1	2.5	0.8

주 : 1) '17년 3월호부터 수출액·수입액 기준통화를 USD로 통일함에 따라 증감률에 변동이 있음

변경 전	
(기재부 「최근경제동향」 기준)	
미국, 중국	USD
유로지역	EUR
일본	JPY

변경 후	
(Bloomberg 기준)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USD

자료 : 기획재정부, Bloomberg

## II. 국내 경제 동향

### 1. 산업활동 : 생산 회복세, 투자 증가세 둔화, 소비활동 부진 지속

□ (생산)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0% 증가한 116.0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공공행정(△5.8%), 건설업(△0.7%)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전자부품 등 광공업(3.3%)과 운수업 등 서비스업(0.5%)의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

□ (소비)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2.2% 감소 <전년동월대비 4.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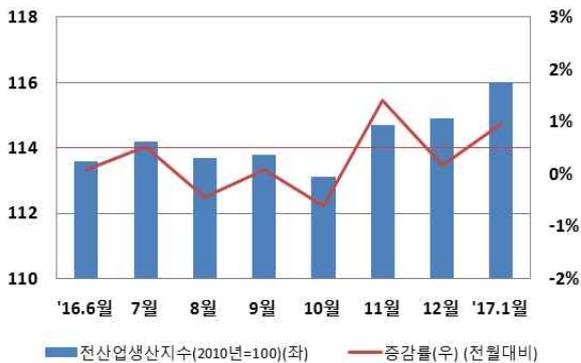
-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6%)는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4.5%), 화장품 등 비내구재(△1.9%) 판매가 줄어 하락

□ (투자) 1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2.6% 증가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 1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0.7% 감소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

- 자동차 등 운송장비(△3.2%)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기계류(5.2%) 투자 증가, 건축(0.8%)은 증가하였으나 토목(△4.5%) 공사 실적 감소

□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대비 0.3p 상승한 100.8,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대비 0.1p 상승한 100.7(2010=100)

전산업생산지수



소비·투자지수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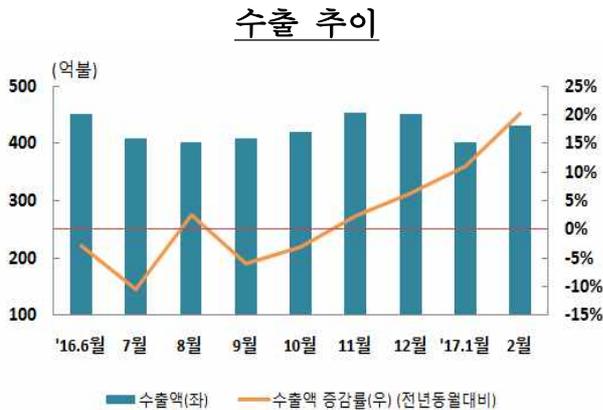
## 2. 수출입 현황

□ (수출) 2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1월:11.1%]한 432억 달러로 '12.2월 (20.4%) 이후 최대 증가율 기록

○ 반도체(56.7%)·석유제품(72.6%) 등 증가, 선박(△30.9%)·무선통신기기(△26.9%) 등 감소

□ (수입) 2월 수입 전년동월대비 23.9% 증가한 361억 달러 기록하며 증가폭 확대[1월:19.8%]

○ 조제식품·가전제품 등 소비재(4.5%), 원유·석탄 등 원자재(38.7%),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13.7%) 모두 증가



## 3. 고용 및 물가

□ (고용) 고용 한파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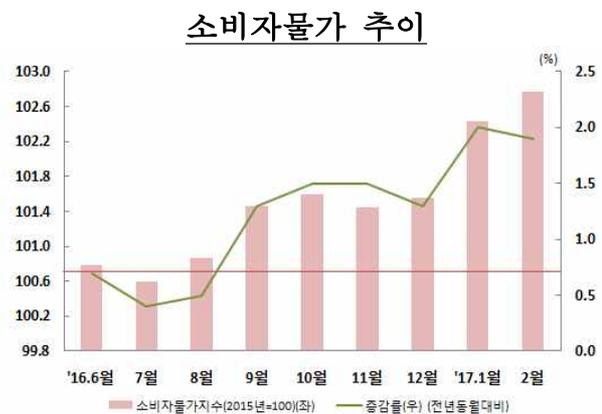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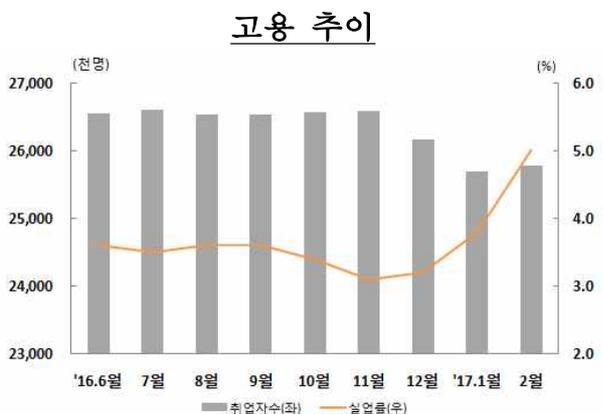
○ 2월 취업자는 2,578만 8천명,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한 59.1%

○ 실업자 135만 명으로 외환위기('99.8월: 136만 명) 이후 최대치 기록, 실업률 역시 5.0%를 기록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2월 구직단념자는 4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4천명 증가,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2.3% 기록

□ (물가)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오름세 유지<전월대비 0.3% 상승>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1%), 주택·수도·전기·연료(0.6%) 등 상승, 오락·문화(△0.7) 하락



### <참고> 국내경제 주요 지표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sup>P</sup>	2/4	3/4	4/4 <sup>P</sup>	12월 <sup>P</sup>	1월 <sup>P</sup>	2월 <sup>P</sup>
GDP성장률(전기비,%)	2.6	2.7	0.8	0.6	0.4	-	-	-
전산업생산지수 <sup>1)</sup>	-	-	112.9	113.9	114.2	114.9	116.0	-
증감률(전기비,%)	-	-	1.3	0.9	0.3	0.2	1.0	-
소매판매액지수 <sup>1)</sup>	-	-	120.0	118.6	121.0	120.5	117.9	-
증감률(전기비,%)	-	-	2.0	△1.2	2.0	△0.5	△2.2	-
설비투자지수 <sup>1)</sup>	-	-	110.5	108.4	117.0	123.8	127.0	-
증감률(전기비,%)	-	-	5.1	△1.9	7.9	5.6	2.6	-
수출액(억불)	5,268	4,955	1,260	1,219	1,324	451	403	432
증감률(전년동기비,%)	△8.0	△5.9	△6.7	△5.0	1.8	6.3	11.1	20.2
수입액(억불)	4,365	4,061	992	1,023	1,105	381	375	361
증감률(전년동기비,%)	△16.9	△7.0	△10.2	△5.2	4.0	8.0	19.8	23.9
실업률(%)	3.6	3.7	3.8	3.6	3.2	3.2	3.8	5.0
소비자물가지수 <sup>2)</sup>	100.0	101.0	100.8	101.0	101.5	101.6	102.4	102.8
증감률(전기비,%)	0.7	1.0	0.2	0.2	0.6	0.1	0.9	0.3

주 : 1) 계절조정지수(2010년=100) 3) p는 잠정치  
 2) 2015년=100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 Ⅲ.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1. 금리 동향

□ 美 장단기금리는 엘런 의장의 매파적 발언\*, 물가지표 상승\*\* 등으로 금리인상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며 월초 대폭 상승, 15일(현지시간) 금리 인상 [0.5%-0.75% → 0.75%-1.0%] 발표와 함께 ‘연 3회’의 점진적 인상 계획이 재확인되자 채권수요가 회복되며 소폭 하락

\* The Executives’ Club of Chicago 연설에서 고용 및 물가지표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3월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3.3일)

\* 미국의 1월 PCE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1.9%로 미 연준의 물가목표인 2%에 근접(3.1일)

- 美 國채(3M,%): 0.513(‘17.2.1)→0.675(3.2)→0.767(3.14)→0.736(3.17)

- 美 國채(10Y,%): 2.472(‘17.2.1)→2.476(3.2)→2.602(3.14)→2.502(3.17)

○ 國고채금리(韓), 월초 美 금리인상 기대가 시장에 先 반영되며 상승하였으나 인상 이후 되돌림 흐름을 보이며 하락

- 國고채(10년물,%): 2.173(‘17.2.1)→2.224(3.2)→2.179(3.17)

최근 美 國채금리(10년물/3개월물)



최근 韓 國고채 금리(10년물/3년물)



#### 2. 환율 동향

□ 美 달러화, 미국 금리인상 기대 강화 및 고용-물가 등 경기지표 호조 등으로 월초 뚜렷한 강세를 보였으나 금리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유럽 및 신흥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이 매력을 감소시키며 약세 전환

달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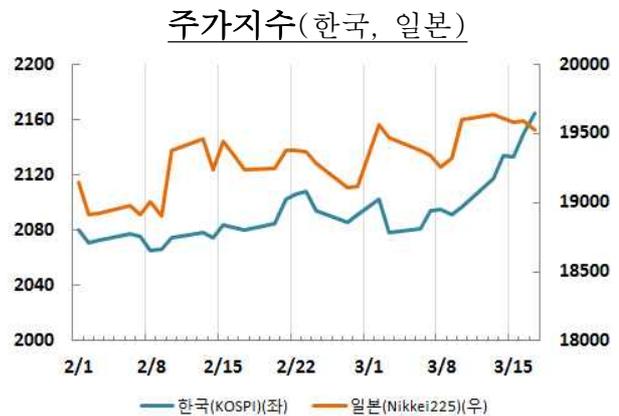
달러 환율(對원화, 對유로화)



### 3. 주가 동향

- 미국이 경기 회복 자신감으로 금리를 인상하자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연준의 점진적 금리인상 전망(연 3회)에 따른 “안도 랠리”가 이어지며 주요국 주가 상승
- (한국)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4회→3회)되며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낮아지고 저평가된 코스피의 매력에 부각, 주식시장 강세

구 분		'17.2.1	'17.3.2	'17.3.17
미국	Dow Jones	19,891	21,003	20,915
유로	Euro Stoxx	3,259	3,385	3,448
한국	KOSPI	2,080	2,103	2,165
일본	Nikkei225	19,148	19,565	19,522



#### <참고>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15년	'16년				'17년		
			1/4	2/4	3/4	4/4	1월	2월	
금리 (%)	정책	미국 FF금리	0.50	0.50	0.50	0.50	0.75	0.75	0.75
		일본 IOER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존 금리	0.05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	미국 국채(3M)	0.153	0.209	0.261	0.277	0.505	0.520	0.528
		미국 국채(10Y)	2.268	1.771	1.484	1.576	2.445	2.458	2.353
		일본 국채(10Y)	0.265	△0.048	△0.233	△0.076	0.043	0.089	0.054
	국내	국고채(3Y)	1.662	1.444	1.247	1.247	1.638	1.675	1.670
국고채(10Y)		2.076	1.793	1.469	1.398	2.074	2.155	2.162	
국제환율	¥ / U S \$	120.4	112.3	102.6	100.8	116.6	113.5	112.4	
	U S \$ / €	1.093	1.132	1.109	1.122	1.045	1.070	1.059	
원화환율	₩ / U S \$	1,173	1,144	1,152	1,101	1,208	1,162	1,131	
	₩ / 1 0 0 ¥	974	1,019	1,123	1,092	1,035	1,024	1,006	
주가	미국 Dow Jones	17,425	17,685	17,930	18,308	19,763	19,864	20,812	
	일본 Nikkei225	19,034	16,759	15,576	16,450	19,114	19,041	19,119	
	유로 Euro Stoxx	3,268	3,005	2,865	3,002	3,291	3,231	3,320	
	코스피	1,961	1,996	1,970	2,044	2,027	2,068	2,092	
	코스닥	682	688	675	681	631	616	612	

자료 : 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원

##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 유가 : 공급확대 우려감, 금리인상 등으로 유가 급락, 50달러선 붕괴

- 3월 첫째 주 미국 원유 생산량은 전주대비 5.6만 b/d 증가한 908.8만 b/d를 기록(2016.2.26.일 907.7만 b/d 이후 최고치)하며 상승세 지속
  - \* 3월 둘째 주 미 원유 시추리그 수는 617건으로 전주대비 8건 증가하며 8주 연속 증가세
  - 3월 첫째 주 미 원유 재고량은 전주 대비 20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치를 4배 이상 상회하는 820.9만 배럴(1.58%)이 증가하며 5억 2,840만 배럴을 기록, 9주 연속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 갱신
- 휴스턴에서 개최된 CERA 연례회의(3.9)에서 사우디 석유장관은 감산연장 논의에 이른 시점이라 발언하며 공급확대 우려감 증가
  - 셰일업체들에게는 미 셰일 생산량 증가분 상쇄를 OPEC이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OPEC의 자동적인 감산기간 연장을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
- 또한 3월 들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유가 하락이 가속화하여 3월 중순 연중 최저치 기록(\$49.82/bbl, 두바이유, 3.14일)

### □ 천연가스 가격 : 2월 중하순까지 하락세 지속 이후 재고 감소 등으로 반등

- 천연가스 가격은 12월말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온화한 날씨 속에 수요 약세 전망으로 12월말 이후 2월 중하순(\$2.564/mmBtu, NYMEX, 2.21일)까지 하락세 지속
- 이후 시장전망을 상회하는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반등하여 3월 중순 2달러 후반대 기록

### □ 연료탄 가격 : 70달러 후반대로 완만한 하락세

- 북반구 석탄수요 피크 시즌인 동절기 종료, 중국 국내 석탄 생산 활동 회복 등이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

### □ 주요 광물자원 가격 : 전기동 등 비철금속, 철광석은 금리인상 영향으로 3월 8~9일 급락했으나 이후 반등, 우라늄은 파운드당 20달러 중반대 회복

- 전기동은 美달러화 강세로 3월 8일 급락했으나 이후 페루 등 주요 구리광산 파업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감 확대로 가격 상승세로 전환
  - 니켈가격도 8~9일 양일에 걸쳐 급락한 이후 소폭 회복, 아연 가격은 미국 등 수요증가 기대감으로 추세적인 상승 지속

- 철광석 가격은 소폭의 등락은 있으나 중국 부동산 관련 지표 호조 등에 따른 철강재 수요 증가 기대감 증가로 1월 이후 추세적인 가격상승세를 보이며 2월 중순 현재 톤당 90달러 초반대 기록
- 우라늄은 수요둔화 우려 지속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작년말 연중 최저치 경신(NYMEX, 11.30일, \$17.75/lb) 이후 상승하여 3월 중순 파운드 당 20달러 중반대 기록

### 주요 자원가격 추이

(기말 종가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1월	2월	3.16	연중 최고	연중 최저	
유가 (\$/배럴)	Brent	37.28	39.60	49.68	49.06	56.82	55.7	55.59	51.74	57.10 (1.6.)	50.92 (3.14.)
	WTI	37.04	38.34	48.33	48.24	53.72	52.81	54.01	48.75	54.45 (2.23.)	47.72 (3.14.)
	Dubai	32.19	35.05	46.46	45.11	53.83	53.23	55.18	50.64	55.45 (2.3.)	49.82 (3.14.)
천연가스 (\$/백만BTU*)	2.337	1.959	2.924	2.906	3.724	3.117	2.774	2.902	3.419 (1.16.)	2.564 (2.21.)	
연료탄(전력용) (\$/ton)	51.58	51.63	53.62	78.95	92.00	83.98	82.53	77.73	86.25 (1.6.)	77.73 (3.10.)	
우라늄 (\$/lb)	34.4	28.05	27.00	22.4	20.4	24.65	23.0	25.45	26.75 (2.10.)	20.5 (1.3.)	
철광석 (\$/ton)	43.57	53.75	55.66	55.86	78.87	83.34	91.27	92.61	94.86 (2.21.)	76.25 (1.6.)	
전기동 (\$/ton)	4,701	4,856	4,827	4,832	5,501	5,921	5,936	5,911	6,145 (2.14.)	5,501 (1.4.)	
니켈 (\$/ton)	8,700	8,280	9,415	10,460	10,035	9,890	10,870	10,290	11,045 (2.20.)	9,380 (1.27.)	
아연 (\$/ton)	1,616	1,785	2,103	2,378	2,563	2,848	2,816	2,836	2,971 (2.13.)	2,530 (1.4.)	

주 : 유가는 WTI유 선물 익월물/브렌트유 ICE 익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 상업거래소(NYMEX), 연료탄은 뉴캐슬 FOB, 철광석은 Fines 현물가격으로 중국수입가 CFR,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bbl)

기준 유종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48.67	43.33	52.97	53.00	54.00	54.00	53.49
Brent	52.32	43.74	54.48	54.00	55.00	55.00	54.62

주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시기: 2017년 3월>

##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 □ 조선산업 : 전년동기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침체 수준

- ‘17년 2월 기준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479% 증가한 50만CGT를 기록
  - 2월 수주량은 전년동월대비 168.8% 증가한 16.5만CGT를 기록
  - 기저효과로 개선폭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2월 누적 수주는 12척에 그쳐 동기간 건조량의 1/4에도 못미치는 미진한 수준임
- ‘17년 2월 기준 누적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464% 증가한 11.8억 달러를 기록
  - 2월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180.5% 증가한 3.5억 달러
  - Clarkson의 1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전월과 같은 122를 유지
- 2월 누적 선박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5% 감소한 41.0억 달러

####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월	2월
수주실적	304.7 (△40.0)	463.3 (52.0)	329.4 (△28.9)	236.7 (△28.2)	39.3 (△83.8)	11.8 (463.8)	8.3 (877.1)	3.5 (180.5)
수출실적	397.4 (△29.8)	371.7 (△6.5)	398.9 (7.3)	401.7 (0.7)	342.7 (△14.6)	41.0 (△23.5)	22.0 (△17.4)	19.0 (△29.5)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 자원개발산업 : Barclays, 2017년 세계 E&P 투자 7%에서 9% 증가로 상향 조정

- Barclays는 올해 1월에 2017년 세계 E&P(Exploration & Production) 자본투자가 전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9%로 상향 조정
  - 특히 BP, ExxonMobil 등 북미 석유기업들의 업스트림 부문 투자 예산증액\*을 반영하여 북미 자본투자가 전년대비 27% 증가에서 32%로 증가할 것으로 수정 전망
  - \* 올해 초 ExxonMobil을 비롯한 북미 8개 석유기업들이 Permian 분지 셰일자산 매입에 1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 다만 Barclays는 단기적인 유가 하락 리스크로 인해 석유기업들의 E&P 예산 하향 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힘
  - 미국 원유생산 증가 및 재고 증가, 5월말 OPEC의 감산 연장여부 등을 유가 영향요인으로 평가하며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유지될 경우 석유기업들의 E&P 투자가 1~2분기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해외건설: 2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12.1억 달러에 불과

- '17년 2월 기준 누적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42.5%가 감소해 여전히 수주부진에 시달리고 있음
- 2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41.8%가 감소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
- 최근 이란 수주 소식이 전해지는 등 중동 수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유가가 2016년 대비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동 발주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월	2월
수주실적	649 (9.8)	652 (0)	660 (1.2)	461 (△30.1)	282 (△38.8)	28.7 (△42.5)	16.6 (△43.5)	12.1 (△41.8)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 ICT산업 : 2월 ICT 수출은 6년 6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20%대 증가율 시현

- 2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8% 증가한 140.6억 달러, 수입은 6.0% 증가한 72.9억 달러, 수지는 67.7억 달러 흑자를 달성
- 반도체(65.0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56.6%↑)는 메모리반도체(41.9억 달러, 85.1%↑)와 시스템 반도체(17.9억 달러, 26.6%↑) 수출 호조 지속
- 디스플레이 패널(22.3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15.5%↑)은 OLED 수요 지속, 패널 단가 상승으로 4개월 연속 수출증가세 유지
- 휴대폰(15.0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25.9%↓)은 경쟁심화, 상반기 전략폰 출시 시기 변화에 따른 기저 효과로 수출 하락세 지속

ICT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월	2월
수출실적	1,552.4 (△0.9)	1,726.8 (11.2)	1,762.3 (2.1)	1,728.8 (△1.9)	1,625.0 (△6.0)	278.9 (19.7)	138.3 (16.7)	140.6 (22.8)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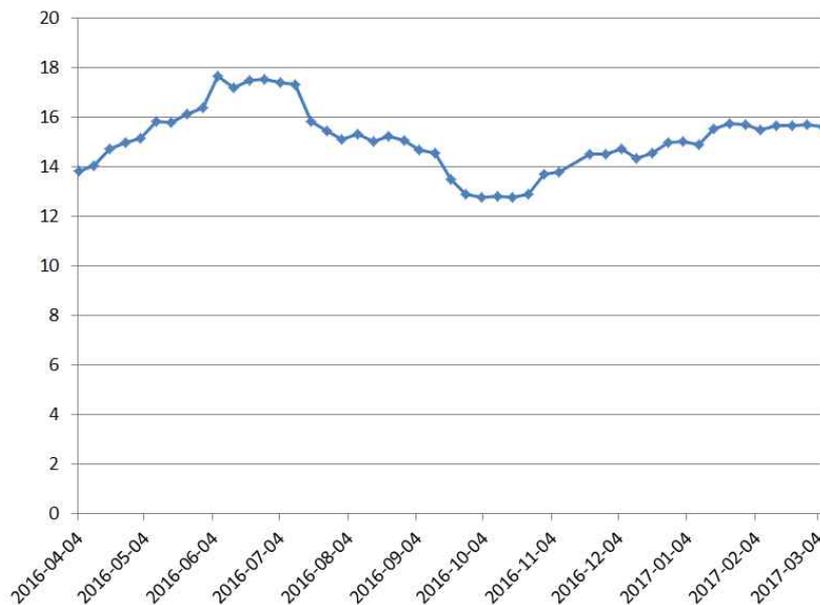
□ 태양광산업: 폴리실리콘 가격은 보험세를 유지 중

- 2017년 3월 폴리실리콘 가격은 \$15.6/kg으로 전달과 큰 변동은 없는 상황
- '17년 1분기까지 폴리실리콘 가격은 중국 수요 증가로 인해 지지될 전망이다, 2분기 이후 폴리실리콘 가격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여행 등 소비재 분야 무역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양전지 제조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전망
-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對중국 수출비중은 90%에 달해 의존도가 높은 상황, 제재 시 큰 타격이 예상되나, 중국산 제품대비 한국산 폴리실리콘은 품질경쟁력이 높으며, 미국 및 독일산 대비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대체가 불가\*한 상황

\*중국이 수입하는 폴리실리콘 中 한국산의 비중은 약 50%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

(단위 : \$/kg)



자료 : New Energy Finance

□ 중소기업: 내수 부진으로 체감경기 악화 지속

- '17년 1월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 가동률은 1.8%p 상승
-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는 2.1% 상승했으나, 전월(119.1)보다는 13.4% 하락한 103.2 기록
- 가동률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7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상승했으나 '비금속 광물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등 15개 업종에서 하락해, 전년동월대비로는 1.8%p 증가, 전월대비로는 1.3%p 하락한 72.2%

○ '17년 2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7년 1월보다 1.0p 하락한 73.5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실적기준)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  
(호경기인 2010년 평균 90.1, 2015년 평균은 81.6)

- 내수판매(73.4 → 73.5, 0.1p ↑), 수출판매(82.2 → 85.0, 2.8p ↑)는 상승했으나 자금사정(73.7 → 73.5, 0.2p ↓) 등은 하락

○ 중소기업대출(+4.2조원 → +3.5조원)은 전월의 계절적 증가 요인(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소멸로 전월 대비 증가폭 축소

### 중소기업 주요 업황 지수 추이

구 분	구 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2월	1월	2월
생산지수	(2010년 =100)	104.3 (0.6)	108.9 (-3.0)	103.9 (0.3)	108.6 (0.0)	104.3 (0.0)	110.7 (1.7)	102.0 (-2.0)	108.7 (0.1)	104.0 (-0.3)	115.2 (4.1)	119.1 (7.6)	103.2 (2.1)	-
평균가동률	(%)	70.5	72.1	71.5	72.1	71.8	72.1	72.0	74.0	73.3	73.6	73.5	72.2	-
자금대출	(조원)	9.2	4.6	15.4	16.5	15.8	5.0	9.5	10.1	9.5	1.5	-5.8	4.2	3.5
중소기업 건강도지수 (SBHI)	경기전반	79.0	81.3	79.0	82.4	80.8	84.2	78.1	86.6	83.7	81.1	79.7	74.5	73.5
	내수판매	78.5	79.9	78.6	82.1	80.2	84.3	78.1	85.9	83.1	81.9	81.2	73.4	73.5
	수출판매	82.2	82.7	84.4	82.6	80.6	80.4	77.6	86.7	86.0	84.9	82.6	82.2	85.0
	자금사정	78.3	80.3	78.4	80.5	79.7	81.2	77.0	82.8	81.5	79.0	78.2	73.7	73.5

주 : 1) 괄호 안은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률

2) 자금대출은 예금은행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금액으로 기간 중 말잔 증감

3) 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2015.1월부터 중소기업 전산업으로 조사범위 확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